시간당 6.7명 각종사고로 병원行

제주소방 '2018년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발간

5만8676명 병원으로 후송… 1일 평균 161명
충돌·자상·절단·물림사고가 전체 42% 차지

지난해 제주에서는 시간당 6.7명이 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충돌이나 자상 등 생활안전분야가 가장 많았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구축한 '제주 손상감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손상환자는 5만867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61명이며, 시간 단위로 따지면 1시간에 6.7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충돌·자상·절단·물림사고로 인한 환자가 42.3%(2만4795명)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 20.3%(1만1900명), 낙상·추락사고 20.1%(1만1793명) 순이었다. 의도적인 타살·폭행사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도 2500명이나 있었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35.4%(2만771명), 19~39세 27.8%(1만6286명)의 순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8932명 많았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로는 주거지가 29.5%(1만7321명), 야외·바다·강 24.3%(1만4232명), 도로 20.8%(1만2227명)이었다.

제주소방본부는 사고가 가장 많았던 충돌·자상 등 생활안전분야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도내 45개 안전 관련 기관·단체와 사고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에서 시간당 6.7명이 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및 각종 연구에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생활안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도교육청, 위기학생 관리·지원 강화

밀착지원 매뉴얼 제작 및 실태조사 진행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위기학생(자살위험군 등)에 대한 관리와 지원 강화에 나선다. 또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자살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중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 및 연계조치를 강화하고, 위기학생 밀착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매뉴얼도 제작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일 '위기학생 현황 및 지원대책' 관련 기자간담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발생과 더불어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중·고등학생 자살위험군이 중학생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자 심각성을 느낀 교육당국이 마련한 보완책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실시된 정서행동특성검사(중1·고1 대상)결과 도내 자살위험군은 2017년 264명(중 150명, 고 114명), 2018년 371명(중 203명, 고 168명), 2019년 359명(중 211명, 고 148명)으로, 중학생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위기학생 및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정서지원 인력 배치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해시도학생이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도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은 위기학생의 우울 및 불안 관련 지원 요청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위기학생 현황 파악의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 또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자살위험)으로 나타나지 않는 위기학생이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지 않아 조기 개입의 어려움이 있음도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고개 숙인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어제 동부서 유치장 향하는 모습 포착… 늦어도 11일 검찰 송치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사체를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씨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됐지만 머리카락 때문에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고씨는 6일 오후 6시35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30m 거리에 있는 유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전날인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고씨는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고개를 푹 숙여 머리카락이 얼굴을 뒤덮으면서 명확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유치장으로 향하던 고씨는 취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얼굴을 감추려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고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같은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는 등 도주 행각을 이어왔지만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4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핸드폰으로는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을 검색하는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고씨의 현장검증에 대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송치는 늦어도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조사를 받고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송은범기자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 제주한라병원 '1등급'

제주한라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8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와 '주사제'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입원진료 분에 대해 19종류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내용은 위·대장·유방·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등 19개 수술별로 항생제 최초 투여시간, 항생제 선택, 투여기간 등 총 6개 지표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한라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은 15.21%(전체평균 38.42%), 주사제 처방률은 2.28%(전체평균 16.35%)로 매주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한라병원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현석기자

육아휴직 기간 로스쿨 재학 법원 "경찰 징계 정당" 판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경감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년 동안 자녀 2명의 육아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했다. 이 기간 A경감은 대학교 로스쿨에서 26과목·68학점을 이수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A경감이 육아휴직 목적과는 관계없이 대학교 로스쿨에 재학하는 등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2017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감은 "육아휴직 중 성실히 육아를 했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에 다녔을 뿐"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육아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녔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A경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서귀포시 양식장 240곳 의약품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6월 한달간 관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과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앞서 5월에는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고, 이번 2차 점검에서는 관내 육상양식장 24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미승인 품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사용 확인을 위해 양식장 내 약품창고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미승인약품 발견시 폐기 및 사용제한 명령 조치하며,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이 발견되면 직접 수거·폐기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양식장 의약품 지도·점검을 통해 생산자 스스로 올바른 용법·용량 등 의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제주양식광어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기체결함 램프리턴

6일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김포로 가려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왔다.

이상민기자

맛과 향이 좋은 감귤(만감)
어떻게 생산 할 것인가
하하농법만이 해결책이다
당
H2O+CO2+햇빛(광)조화 => 당상승
◎ 꽃이 성냥개비 ◎ 꽃이 콩알 ◎ 2차낙과 후 일주일 간격 2회
◎ 과일색이 탈색될때 3회 => 해피한그린 + 글루칼 엽면시비
양낭(갑)
내피를 양낭막 또는 양낭이라 하는데
양낭을 부드럽고 씹히는 정도가 가볍게 하려면 =>
봄순이 녹화되면 첫 세근(뿌리)발생시 자연(천연) 가리가
9% 들어있는 하이휴믹 토양관주
향
감귤(만감)을 먹고나서 여운의 향을 입안에 퍼지기 위해 착색시 =>
해피한그린 + 글루칼 + 팡이엔 을 2번 엽면시비
해피한그린 이온이 3개인 희토 원소가 들어있는 복합생육조절제
글루칼 포도당 칼슘(글루콘산)으로 높은 흡수율을 자랑
팡이엔 고기능 식이유황(MSM)함유된 환경친화적인 고기능 생육 촉진제
하이휴믹 알카리성 천연가리(K-부식산)로 친수성이 뛰어난 포타슘 휴믹산
곰탱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 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전액무료교육 매월최대 116,000 지급
순서 : 방문 상담 -> 고용센터
전기내선공사 실무자양성과정
1기 취업 86% 달성 100% 취업연계

대 상	실업자 / 구직자 / 매출 1억5천 미만 사업자
교육기간	6월 개강예정 – 6.5개월 과정
교육시간	09:00~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배관배선공사, 약전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설계등

※ 필요서류 : 내일배움카드
(카드신청후 수령까지 6주이상 기간 소요됩니다.)

전액무료 매월최대 50,000 지급
영어초급 과정

대 상	실업자/구직자/매출1억5천미만사업자
교육기간	6월 27일 ~ 9월 23일 – 09:00~12:50
교육시간	1일 4시간 – 3개월 과정
교육내용	회화, 문법, 관광영어

(주)제원직업전문학교
T : 747-5252
jejujewon.com

※ 본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